

All clothes by
CARNET ARCHIVE, DOHYE YUN, HONGLEE, JIMI,
KYOUNG, MINA CHUNG

Photographer
JIMIN SON

Fashion Editor
MI SEON CHOI

Models
NIKO @ETC Management, YUN LEE @YG Kplus,
SEO YOON UM and JI WON CHOI @Esteem Model,
HYUNHO KIM @Gost Agency and
EUN JU PARK @Jennifer Model Management

신진 디자이너

미래가 바 뀌었다

오늘날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미래의
디자이너로부터 배우는 것들

In conversation with
SELEN MECOGLU

변화무쌍한 패션의 역동성은 많은 디자이너들을 위해 새로운 자원과 창작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동시에, 이는 진원지가 이미 알려진 패션의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시장 중 하나가 바로 매일 다른 재능 있는 사람들로 주목받고 최신 유행 그리고 다양한 창작물을 패션 아젠다에 가져오는 한국입니다. 패션을 이미지뿐만 아니라 표현의 방식으로 포용하는 라이징 한국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빛을 이 시장에 가져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홍리

(HONGLEE)

디지털 세계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 패션의 세계도 치열하다. 홍리는 이 치열한 세계를 배경 삼아 정보를 얻을 줄 알고, 모험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녀는 남성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본인이 구사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의 구분을 허무는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디자인을 보여주며 본인의 색을 찾아가고 있다.

SELEN MECOGLU. 이렇게도 치열한 패션 산업계에서 본인의 자아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 “이 것이 나를 상징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확정 짓기까지의

과정은 궁금하다.

HONGLEE. 변화가 빠른 패션 산업에서 트렌드를 따라잡으려 하다보면 내 아이덴티티를 잃고 트렌드만을 쫓아가기 바빠진다. 그래서 나는 트렌드를 잃는 것을 선택했다. 개인적으로 트렌드에 민감한 편이 아니기도 하지 만 모든 창작과 예술의 중심에는 대체불가능한 의미와 아티스트만의 철학이 있다고 생각한다. 트렌드를 잃고 나면 내가 보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다보면 내 상상과 철학을 표현할 수 있는 장르를 구축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상징이다.

S.M. 디자인을 시작하게 된 여정을 돌이켜 본다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언제일까?

H. 나의 작업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을 때 시작된다. 일상에서 떠오르는 질문을 허투루 넘기지 않고 그것에 대한 생각에 잘 빠지는 편이다. 쓸데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이어나가다보면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떠오르는데 그 질문에 대한 의심과 거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질문들은 나의 작업에 대한 거름이 된다. 이 시간들은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아무리 세상에 오리지널리티가 없다고 한들 나의 철학에서부터

시작되는 작업은 나의 것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항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을 내 작업에 녹여낸다.

S.M. 작업을 하는 데에 가장 우선 순위가 있다면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시작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하다.

H. 나는 작업을 실제로 시작하는데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 난 스스로 slow thinker, fast worker 이 라고 생각한다. 디자인을 시작할 때 내가 어디서 영감을받아 어떻게 디벨롭을 할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내가 나만의 철학을 가지고 잘 녹여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 분야에 직결된 이미지들에서 영감받는 것을 경계한다. 대신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한 흔적이 묻어나는 작 업물들이 있나 많이 찾아보는 편이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을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자기만의 방 식으로 풀어내고 표현했는지. 그 아티스트들의 분야에는 한 정을 두지않아서 보통 작업에 대한 아이디어 를 떠올리게 되면 키워드를 정하고 관련된 전시, 오 브제, 영상물, 글들을 파헤친다. 시각화 하기 어려운 것을 주제로 삼는 것을 즐기 기 때문에 단어들로 내 생각을 정리해나가고 다른 레퍼런스들로 내 생각을 시각화해나가는 과정이 꽤 길게 걸린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내 생각을 시각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방 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결과가 텍스타일이나 디자인(실루엣이나 디테일)으로 나오 는 것이다.

S.M. 홍리의 디자인을 보면 남성복의 카테고리 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디자인을 하는 데 에 있어 성별의 구분을 짓는 편인지 아니면 별다른 차별성을 두지 않고 디자인 하는지 궁금하다. 성별에 따라 다른 점이나, 성별에 관계없는 부분을 디자인 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지 설명해달라.

H. 내 디자인은 남자 몸에 얹어 촬영이 되고 세상에 알려졌을 뿐이지 내 디자인 자체에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한 사람을 보여주는 수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옷을 남성복과 여성복 구별을 두지 않는 것을 선호 한다. 애초에 옷이라는 것은 이제 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인데 프레임을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 옷에는 여성의 몸 이나 남성의 몸에 맞춘 실루엣, 패턴적인 요소가 없다. 남자가 입을 수도있고 여자가 입을 수도 있는 실루엣이다. 남성복 전공을 선택한 이유도 앤드로지너스 룩이 남성복 중심이라 는 생각을 해서였다. 남자들도 소위말하는 여성스러운 라인의 옷 을 입고싶을 수 있는데 선택지가 너무 없는게 아 닌가 느꼈다. 옷이라는 것은 취향의 차이이지 젠더의 선을 그어 구분할 분야가 아니다. 디자인 너로서 사람들에게 취향을 표현할 자유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은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결국에 인간 이 만든 프레임 안에 갇혀있지 않고 일상에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그 borderline을 자유롭게 넘나들면 좋 겠다.

S.M. 디자인에서 미래지향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데 미래파 예술가라고 보아도 무방할까?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미래지향적인 패션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H. 우리가 3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선상에서 흘러간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공존하고 있으며 우리는 살고있지만 동시에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이 다. 하지만 현 실에서 우리는 3차원 이상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3차원 그 이하다. 나는 3차원 세 상의 그 너머를 상상하였지만 그것을 physical하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내 디자인이 ‘미 래적인 기술’(예를 들면 metaverse 의상이라던가 digital dressing 등) 을 빌린다면 전달에있어서는 완 벽하게 전달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면에서는 미래적인 디자인 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세미 꾸뛰르(과거적임)에 가깝다고 본다. 내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는데 사용된 재료와 디자인이 3차원 세 계에서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었지만 그 한계점 자체 도 나의 작업 포인트 중에 하나다.

S.M. 작업물에서 실을 이용한 것이 눈에 띈다. 실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게 된 스토리를 들려달라.

H. 이 컬렉션 <Time and Space, do they exist?>는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불명한 존재에 대한 것이다. 시간의 왜곡과 그것의 시각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싶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인지하는 공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이론으로 많이들 접했을 것이다. 사 실 나는 과학적으로 접근 했다가 보단 쓸모없는 것의 가치에 대한 생각으로 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가치 가 굉장히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리서치를 하던 중 체코 비디오 아티스트 Ivan Ladislav Galeta 의 영상 작업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의 작업들에서 시간과 공간 개념이 가장 객관적 이면서 주관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 여기 서부터 디벨롭을 시작하였다. 시간은 숫자여서 명확 하지만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느끼는 공간은 눈 또는 뇌로 인지하는 주체마다 다르게 입력된다. 내가 보 는 정육면체가 누군가에게는 구일수도, 파노라마처럼 길쭉하게 펼쳐진 직육면체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것은 시각의 착각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누군가가 보는 자켓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길바닥 깔이 신발에 붙어 늘어진 것처럼 길게 늘어진 모양일 수도 있고, 걸어가는 다리가 슬로모션처럼 연결되 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이때까지 분명하고 견고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아닌게 아닐까하는 상상을 했다. 리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Francois Vogel의 늘어지는 고양이 영상 <Caht sur fond vert>이 뇌리에 박혔다. 이 늘어들어진 시간들은 그의 영상 작업물에서 보이는 것 처럼 나에게 견고해 보인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라 인식되었고 이런 모양을 시각화 하는 방법으로 실을 사용하였다. 그 위에 연장되는 느낌을

내기위해 프린트를 찍어 내 시그니처를 만들었다.

S.M. 런던에서 오랜 시간 지내다 한국으로 넘어 왔는데 한국 업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체감하기에 한국에서도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지지하려는 분위기가 달라 졌는지 궁금하다.

H. 한국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원하지만 아직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베이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런던에 있던 디자이너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머테리얼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약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런던은 학생을 우선시 대해주고 창작에 대한 것에 한계를 두지 않아 어 떤 특이한 것을 시도 하더라도 함께 시도하고 도전 해준 곳들이 많다. 물론 한국에서 작업을 하는데에도 많은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 또한 한국사람들은 트렌드에 매 우 민감해서 패셔너블한 대신 새로운 것에 대한 과감한 시도가 아직 여전히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공부를 끝내고 한국에 들어와서 자신의 색깔을 죽이고 맞춰나가지만 지치지않고 늘 그 래 왔듯 자신의 날개를 펼쳐서 원래 이곳은 다양 함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끊임없이 보여 줘야한다 고 생각한다.

S.M. 홍리에게 있어 앞으로 견고 싶은 길이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 좋을까?

H. covid-19으로 졸업반을 한국에서 혼자 준비를 하였고 많이 불안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하고 어떤 색깔을 가진 사람인지 보여주는 첫 발판 이었는데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 만큼 나를 새롭게 봐줄까하는 의문과 불안감이 늘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 옷을 흥미롭게 생 각해주셨고 앞으로의 길을 기대하고 계시더라. 졸업을 하고서 학생 신분을 떠나고 나니 어쩔 수 없이 현 실적인 상황에 부딪혀 새로운 컬렉션을 준비하는데 있어 오랜시간이 걸리고있지만 홍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 디자인을 접하는 사람들이 표현의 가능성을 타 아 두지않고 더 자유롭게 자유로워지면 좋겠다.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야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남성복 전공을 선택한 이유도 앤드로지너스 룩이 남성복 중심이라 는 생각을 해서였다. 남자들도 소위말하는 여성스러운 라인의 옷을 입고싶을 수 있는데 선택지가 너무 없는게 아 닌가 느꼈다. 옷이라는 것은 취향의 차이이지 젠더의 선을 그어 구분할 분야가 아니다.”

- HONGLEE

